

‘원엑스퍼펙트 IV’

시판

가산전자

가산전자가 DVD오버레이기능·파워온TV 등 11가지 멀티미디어 기능을 하나의 보드에서 제공하는 멀티통합보드 「원엑스퍼펙트IV」를 개발, 본격 시판한다.

가산이 개발한 원엑스퍼펙트IV는 DVD 오버레이기능을 제공해 720×480 해상도에서 6만5천컬러와 트루컬러로 TV와 DVD를 감상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됐다.

이 제품은 40나노초 속도의 고성능 EDO램 2MB를 기본으로 탑재한 64비트 VGA에 첨단 멀티미디어 확장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고가의 음성다중 TV튜너를 내장, 음성다중 TV를 시청할 수 있으며 일주일분 방송정보를 제공하는 K코드도 탑재해 다양한 방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 96년 신소프트웨어 연말대상을 수상한 멀티미디어 영어 학습프로그램 「캡션맥스」를 기본 제공하며 원격지 PC사용자와 실시간에 영상·음성통신을 즐길 수 있는 컬러PC 영상회의기능을 옵션사양으로 제공한다.

TRS시스템 사업 본격화

국제전자공업

국제전자공업이 TRS(주파수 공용 통신)시스템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선보인 유럽형 휴대형 TRS무선기(MPT1327)의 시스템과 단말기를 공군에 66억원 어치, 서울 시경에 TRS중계시스템을 10억원어치 공급기로 했다.

이 회사는 이를통해 TRS시스템 장비시장에서 발빠르게 시장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또 오는 6월에는 TRS장비의 무선단말기를 자체기술로 제작해 해외수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수출은 올해 약 50만달러, 내년에는 20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이회사는 TRS시스템으로 연간 150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전자공업은 이를위해 TRS 단말기 연구개발에 약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용 무전기전문업체인 이회사는 이동통신장비사업을 적극 확대한다는 전략아래 TRS장비 사업과 함께 오토타기 지하중계기를 개발, 이시장에도 신규 진출할 계획이다.

올해 매출목표는 지난해 380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520억원으로 잡혀있다.

튜너모듈 합작 생산

추진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독일 반도체업체인 테믹사와 TV 및 VCR의 핵심부품인 튜너모듈을 생산키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그간 SGS-톰슨 등 몇몇 외국 유럽업체와 자사 주력제품인 TV 및 VCR의 핵심 반도체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해 온 대우는 최근 테믹의 튜너모듈 최대 생산기지인 마닐라공장의 절반을 인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배순훈 대우전자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테믹의 최고 경영책임자(CEO)인 에버하트 회장과 수차례 만나 마닐라공장 지분 참여를 통한 합작공장 운영을 위한 세부 계약조건을 논의했으며 최종 계약체결은 빠르면 2월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와 테믹이 마닐라공장에서 생산할 튜너모듈은 3×6cm 크기로 TV 및 VCR의 입력 시그널을 중간 단자까지 연결하는 핵심부품이다.

이 합작공장이 본격 가동될 경우 대우는 가전분야의 핵심부품 생산라인을 보유케 돼 안정적인 부품수급에 따른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며 테믹도 보다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양사는 기대하고 있다.

테믹은 자동차로 유명한 독일 벤츠그룹의 자회사로 유럽에서는 지멘스·필립스·톰슨에 이어 4번째로 큰 반도체업체로 지난해 통신용 및 TV·VTR용 반도체를 전문생산, 연 1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태믹은 그동안 프랑스 톰슨 가전 부문에 반도체를 주력 공급해 왔다.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 시스템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시스템(DSS) 양산에 착수한다.

대우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미공장에 구축한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시스템 생산라인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미국시장을 겨냥, 본격적인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국내에서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시스템 생산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멕시코 복합가전단지에서도 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대우전자는 이 제품을 RCA 등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미국시장에만 총 30만대를 수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시스템시장은 지난해말 현재 총 2백만대 규모로 RCA·소니·파나소닉 등이 치열한 시장 선점경쟁을 벌이고 있다.

비디오 CD/VCR 일체형 「멀티비디오 시스템」 출시

대우전자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AC관련 기기의 사용이 전문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전자는 VCR과 비디오 CD를 결합, 일반 VCR과 CD를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2가지 제품의 상호복합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멀티 비디오 시스템」을 시판한다.

대우전자 「멀티 비디오 시스템」(모델명 : DMV-210)은 ▲ CDG 슈퍼 임포즈(Super Impose)을 사용해 CDG의 배경화면을 외부의 TV, 캠코더 등의 화면위의 겹쳐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디오 더빙 기능이 있어 VCR테이프에 기록된 영상은 그대로 둔채 음성만 지우고 음질이 더 우수한 CD음성으로 바꾸어 줄 수 있으며 ▲테이프 자동 녹음 기능은 CD에 수록된 음악을 외부 오디오 테이프의 시간에 맞게 A/B면으로 자동 편집하여 녹음을 해주는 등 국내 최초의 기능을 채택한 획기적인 제품이다.

또한 CD 수록된 내용을 버튼을 한번만 누르는 것으로 VCR 테이프에 간단히 녹화할 수 있는 간단 편집기능과 비디오 카메라를 연결, TV화면으로 자신의 모습을 배경으로 자막이 나오게 할 수도 있는 등 별개의 VCR과 비디오 CDP를 연결해서는 할 수 없는 복합기능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다.

「멀티 비디오 시스템」은 4헤드 블랙다이아몬드 헤드드럼 VCR과 버전 2.0의 비디오 CDP를 결합한 것으로 VCR테이프의 재생, 초간편 예약녹화 등과 CD의 재생 등 각 단품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가 있으며 특히 VCR과 비디오 CD의 모드선택에 따라 표시창의 색상이 오렌지/그린으로 변환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멀티칼라 LCD창」을 선택하였다.

특수저항기사업 주력

두원전자

저항기전문 업체인 두원전자는 향후 시멘트·퓨즈·권선저항기 등 특수저항기에 사업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두원전자는 그동안 이들 특수저항기 외에 탄소피막저항기 등 일반 범용저항기도 생산해왔으나 최근 범용저항기시장이 침체되고 업체간 경쟁심화로 관련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를 줄여나가는 대신 특수저항기에 사업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산라인을 특수저항기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 자체 연구소를 개소, 각종 특수저항기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채산성 확보를 위해 일본·미주지역 등으로의 해외수출처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통신·환경분야로 사업 다각화

미래음향

음향기기 전문업체인 미래음향이 최근 회사이름을 (주)미래전자로 바꾸고 기존 음향기기 위주에서 통신 및 환경 관련기기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전자업체들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카세트 등의 오디오 제품을 공급해 온 미래전자는 오디오산업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중국산 저가제품의 범람으로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사업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래전자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원격시동 장치, 공기청정기, 핸드폰용 핸드프리 등으로 생산품목을 넓히고 있으며 최근엔 자동차 원격시동 「UFO시리즈」 계기로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45군데의 대리점을 갖고 있는 이 회사는 앞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춰 올해 신규사업인 차량추적시스템(CSS) 관련 장비도 공급할 방침이다.

차량추적시스템이란 자동차 원격시동장치에 별도의 전파발신 장치를 부착,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통해 분실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이밖에 미래전자는 공기청정기 신모델로 추가 개발하고 있다.

미래전자는 이같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올해 오디오 관련기기와 기타 품목의 매출비중을 50대 50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128채널 위키토키 개발

맥슨전자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맥슨전자가 협·광대역 겸용 업무용 간이무선국(위키토키)을 개발했다.

맥슨전자는 16채널 양대역 겸용 위키토키인 「맥스콤」의 개발, 출시에 이어 기존 출시모델중 최대 채널 제품인 128채널 모델 「맥스콤 128」을 개발,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단파(VHF) 및 극초단파(UHF) 겸용인 이 위키토키는 협대역(12.5kHz)·광대역(25kHz) 조정프로그램 칩이 내장돼 있어 자유롭게 대역폭을 조정해 사용할 수 있는데다 그룹호출기능도 있어 1대1 및 1대다, 다대다 등 다양한 종류의 통신이 가능하다.

특히 이 위키토키는 대형 액정 표시장치(LCD)를 채택해 기기의 작동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스캔기능, 우선채널 선택기능, 송신금지기능, 잡음·혼신 제거기능 등을 구비하고 있다. 크기는 57×37×143mm, 무게는

456g이다.

올 매출 1,280억 목표 메디슨

메디슨은 흥천 대명콘도에서 전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갖고 올 매출규모를 지난해 794억원보다 50% 이상 늘어난 내수 550억원, 수출 9천만달러(약 730억원) 등 총 1,280억원으로 잡고 고가장비 시장공략을 본격화한다는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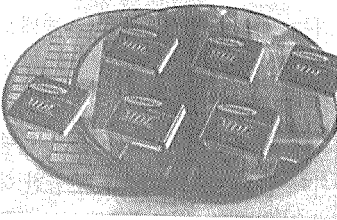
특히 메디슨 3차원(3D) 및 각종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MRI) 매출규모를 1,145억원(총매출액의 90%)으로 늘려 잡고 이들 분야를 주력상품으로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메디슨은 총매출액의 약 8%인 102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 저가형 컬러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디지털 컬러 초음파 영상진단기 개발을 완료해 출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 고감도 프로브 및 동물용 등 각종 프로브 개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또 메디슨은 내수시장의 경우 MRI·3D 및 디지털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중심으로 종합병원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한편 개업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할 계획으로 있는 등 이원화된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D램 복합칩 국내 첫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최근 1MD램과 주 문형반도체(ASIC)를 통합한 D램 복합칩 「MDL80」을 국내 첫 개발, 3월부터 본격 양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MDL80」은 0.5 μ m 공정기술의 ASIC제품에 1~2MD램을 내장할 수 있는 복합제품으로, 3.3V와 5V에서 동작이 가능하며 기존 ASIC제품 개발시 설계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복합칩은 두 개의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보드 크기를 줄일 수 있다.

특해 D램과 비메모리 소자를 원칩화할 경우 두 칩간에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이 없어져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D램 시장이 1~4M의 저용량 제품에서 16~64M의 고용량 제품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트업체들의 저용량 제품 확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삼성측은 설명

했다.

삼성전자는 MDL(Merged DRAM with Logic)제품을 향후 주요 전략상품으로 삼는다는 방침 아래 이번 MDL80 개발에 이어 1~4MD램의 내장이 가능한 MDL85와 0.35미크론 ASIC에 16MD램을 내장한 MDL90을 연내에 개발, 양산할 예정이다. 또한 98년에는 0.25미크론급 제품을, 2000년에는 0.18미크론 공정의 첨단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해 세계 일류의 D램 복합칩업체로 부상할 계획이다.

D램 복합칩 시장은 96년 1억 달러에서 올해는 2억달러, 내년에는 6억 달러로 성장하며, 2000년에는 3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삼성측은 예측하고 있다.

해외생산 가전 고부가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올해 가전제품의 해외 현지화에 적극 나선다.

이 회사는 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 해외 생산체제가 지난해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현지 시장공략에 나설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 현지 생산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제품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해외시장에 공급하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올해부터 국내보다도 현지 공장에서 더욱 많이 생산할 계획인데 세탁기의 경우 현지 생산·수출 비중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51%로 높일 예정이며 냉장고도 50% 이상을 현지에서 생산해 수출할 예정이다.

컬러TV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주로 내수시장과 해외 유망시장에 대한 수출에 주력하는 대신 영국공장·멕시코공장과 같이 선진시장을 겨냥한 해외공장의 경우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는데 대형제품의 비중을 올해 각각 30%대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특히 그동안 생산한 컬러TV를 주로 수출했던 중국공장을 올해부터 현지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체제로 바꾸고 대신 베트남공장을 동남아 컬러TV시장의 생산기지로 육성키로 했다.

이 회사는 이밖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스페인의 TVCR공장에 에어컨과 진공청소기 등의 생산라인을 새로 증설하는 등 해외 현지공장의 복합가전단지화를 올해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영상통신용 디지털 카메라 개발

새롭기술

새롭기술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

회의를 할 수 있는 영상통신용 컬러 디지털카메라 「텔레캠」을 개발, 시판한다고 밝혔다.

새품이 개발한 텔레캠은 소형·초경량 디지털카메라로 비디오 캡처보드를 기본 내장해 동영상은 물론 정지영상까지 선명하게 디지털데이터로 저장, 영상편지 및 스캐너 대응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영상통화기능과 통화시 영상녹화·재생기능, 통화내용 녹음기능, 그림과 도표를 그리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전자칠판기능, 상대방 화면에 자신의 마우스커서를 출력해주는 원격마우스기능 등 영상회의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하드웨어 사양은 인터라인 방식의 0.25인치 CCD카메라를 사용했다.

산업용 밀폐형 연축전지 증산

세방전지

세방전지가 밀폐형 산업용 연축전지 생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간이식 라인에서 월 1,000개의 장수명 칼슘-칼슘 밀폐형 축전지(모델명 VGS)를 생산중인 세방전지는 생산능력을 월 5천개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 최근 창원 공장에 총 60억원을 투자, 양산설비를 도입중이라고 밝혔다.

세방전지가 2월말까지는 양산라인 설치를 마치고 3월부터 본격 가동, 생산량을 대폭 확대할 칼슘-칼슘 밀폐형 연축전지는 이동통신 기지국 및 교환국의 무정전전원장치 등에 내장되는 고부가 제품으로 세방은 이번 증산을 통해 지난해에 40억원에 그쳤던 이 제품의 매출을 올해는 2백억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방측은 자사제품이 그동안 국내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해 온 미국이나 유럽산 제품에 뒤지지 않는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창원 양산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3월부터는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산업용 밀폐형 연축전지 시장은 지난해 200억원 규모를 형성한 데 이어 올해에는 개인휴대통신(PCS)·주파수공용통신(TRS) 등 신규 통신사업이 본격화하는 데 힘입어 3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의료기기 생산 본격화

서통

서통이 미국 UMSI사와 기술 제휴, 전자의료기기 생산에 나선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시물레이터가 장착된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를 비롯, UMSI가 생

산하는 모든 제품의 아시아지역 총판권을 획득한 서통(대표 최좌진)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통이 생산한 각종 의료기기는 UMSI에 역수출하는 형태로 공급하는 한편 자사가 개발한 홍채자동진단 시스템의 경우 UMSI를 통해 미국식품의약국(FDA)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시장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등 협력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서통과 UMSI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서통의 경우 고급 의료기기 관련기술 조기습득과 세계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인 미국시장 진출이 용이하고, GE·지멘스·픽커·시마추보다 규모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UMSI의 경우 아시아지역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의욕적인 사업파트너가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생산원가를 20% 이상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통은 이달 말부터 시물레이터가 장착된 CT와 암 치료장비인 코발트나이프 및 적외선으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옵티컬 이미저(Optical Imager) 등 UMSI제품 판매에 나서는 한편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 상반기 중 홍채자동진단 시스템 및 각종 전자의료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유망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서통은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홍콩·필리핀 등에 이미 지사를 설립하고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대리점을 확대할 방침이며 필리핀과 중국 등에서 현지생산 계획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엔드 오디오

‘클래식 3’ 개발

아남전자

아남전자는 최근 통합앰프·CD 플레이어·스피커 등으로 구성된 하이엔드 오디오 「클래식 3」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아남전자의 「클래식 3」 개발로 현재 인켈·삼성전자·태광산업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내업체들의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공략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년간 12명의 연구인력이 투입돼 개발된 「클래식 3」는 통합앰프·CD 플레이어·스피커로 구성돼 있는데 앰프의 경우 기능은 최소로 줄이고 성능은 최대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남전자는 「클래식 3」를 다음 달부터 판매할 계획인데 제품가격이 270만원대로 고가이기 때문에 판매를 원하는 대리점을 선별해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희토류 AC서보모터·

드라이버 국내 첫 개발

LG산전

LG산전은 최근 보통자석보다 10배의 자력을 가진 희토류 자석을 이용한 AC서보모터 및 드라이버 9개 기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LG산전이 총 2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드라이버는 성능면에서 일본제품과 대등한 수준으로 특히 속도제어 범위가 종전의 1대 3, 000rpm에서 5,000rpm으로 대폭 향상됐으며, 제어명령에 대한 응답주파수가 일본제품과 비슷한 200Hz로 우수하다.

또 AC서보모터의 경우 희토류 자석을 이용해 크기를 기존제품보다 30% 이상 줄였으며 저속에서의 회전정밀도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AC서보모터 및 드라이버는 섬유기·반도체장비·로봇 등 각종 산업용 기계의 구동장치로, PC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고 부하의 변동에 자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오토튜닝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최근 수요가 급격히 증가, 지난해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휴대형PC 3월 시판

LG전자

LG전자가 3월부터 핸드헬드(휴

대형)PC를 시판하고 8월께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을 채택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를 선보이는 등 복합정보통신단말기 사업에 본격 나선다.

LG전자는 올해 승부사업의 하나로 복합정보통신단말기 사업을 선정,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시장선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작년 추계 컴덱스에서 선보인 영문판 핸드헬드PC를 3월부터 양산, 북미지역에 수출하는 한편 7월께 한글판 핸드헬드 PC를 국내시장에 판매기로 했다.

핸드헬드PC는 손바닥 크기의 소형 PC로 일반 PC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데스크톱PC와 호환도 가능하다. 또 올해안에 핸드헬드PC에 컬러액정표시장치를 내장하고 CDMA 방식을 채용한 차세대 핸드헬드PC도 개발할 계획이다.

8월에는 CDMA 방식을 채택한 PDA를 시판기로 했다. CDMA 방식의 PDA는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첫 시판한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 PDA(멀티X)에 비해 크기와 무게를 각각 3분의 2로 축소 한 것이다.

잉크젯프린터시장 진출

LG전자

LG전자는 자체기술로 고성능

잉크젯프린터 2개 모델을 개발, 오는 2월말께 시판에 들어가면서 잉크젯프린터 시장에 본격진출한다.

이회사의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일 잉크젯프린터는 LG전자연구소가 개발한 엔진을 장착한 독자모델」이라며 「고해상도의 30만~40만원대 컬러 잉크젯프린터 2개 모델의 개발을 끝내고 신뢰도 테스트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LG가 생산할 프린터는 카트리지를 교환하지 않고서도 컬러와 흑백프린트를 모두 할 수 있는 2헤드방식이다.

LG전자는 잉크젯프린터의 개발로 레이저프린터와 함께 프린터부문에서 풀라인업을 이루는 것을 계기로 공격적인 마케팅활동을 벌여 올해 내수시장에 11만1천대의 잉크젯프린터를 판매할 계획이다. 이회사는 올해중 추가로 1개모델의 잉크젯프린터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 프린터시장의 총수요는 130만대로 이중 75%가 잉크젯프린터이며 레이저프린터가 2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LG전자는 지난해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 6만5천대를 팔아 내수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도 7만2천대 내다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16배속 CD롬드라이브 스핀들모터 국내 첫 개발

LG전자부품이 국내 업체 처음으로 일본 소니사가 독점 공급중인 16배속 CD롬드라이브 구동용 스핀들모터를 자체 개발, 양산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8배속 CD롬드라이브용 스핀들모터를 개량한 16배속용 제품 개발에 나선 LG부품은 최근 시제품 개발을 완료, 상용시험을 거쳐 본격 양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부품은 이에 따라 경남 양산공장의 CD롬드라이브용 스핀들모터 관련 총 3개 제조라인중 2개 라인은 종전대로 8배속용을 생산하고 나머지 1개 라인을 16배속용으로 전용해 우선 월 10만개 정도씩 생산, 계열 CD롬드라이브업체인 LG전자에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LG부품측은 LG전자가 현재 생산중인 16배속 CD롬드라이브 구동모터 월 20만개분의 공급처를 일본 소니와 자사로 이원화할 것으로 보고 당분간은 1개 라인 생산체제를 운영하되 장차 16배속 제품의 시장추이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내시장이 8배속 중심에서 16배속 제품으로 곧바로 뛰어넘어 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G부품·삼성전기·대성전기 등 관련 스핀들 모터업체들도 조만간 16배속으로 주력시장을 전환할

LG부품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업 본격화

이디엔지니어링

교육장비 및 전자계측기업체인 이디엔지니어링이 상호를(주) ED로 바꾸고 통신분야로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

이회사는 기존의 교육장비 및 계측기전문업체에서 첨단 정보통신사업으로 사업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회사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통신사업부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공급권을 획득한 데이콤 공중전화 공급사업을 본격추진해 연말까지 8,500백, 약 85억원어치를 납품한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에는 1만대가량을 공급키로했다.

이와함께 통신전송장비 시장에 진출, 조만간 이동통신 등의 통신장비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이회사는 이를위해 지난해 하반기 40억원을 들여 대전에 연구소를 설립, 통신장비 개발을 추진해왔다.

지난 80년 설립된 이디엔지니어링은 각종 전기전자 기초실습장비에서 계측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교육장비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제1의 생산업체로 지난해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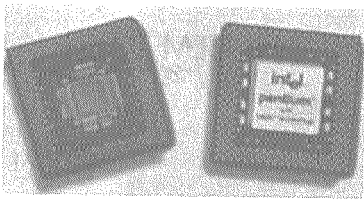
출실적은 220억원이다.

ED는 통신사업에서 매출발생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32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전망이다.

또 오는 5월 장외시장등록과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통해 내년에는 외형 5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MMX 펜티엄칩 발표

인텔코리아



인텔코리아는 PC의 그래픽비디오·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한층 성능이 뛰어난 멀티미디어 PC를 구현할 수 있는 「MMX(Multi Media Extension)펜티엄 프로세서를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인텔이 데스크톱용과 노트북용 등 2가지 버전으로 내달부터 공급할 이 제품은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캐시메모리 용량을 32k로 늘리고 칩 안에 57개의 멀티미디어 전용 명령어를 내장시켜 3D를 비롯한 그래픽 및 비디오·오디오의 성능구현 측면에서 기존 제품보다 60%의 향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

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정용환 사장은 「이번 MMX칩의 본격 공급으로 풀스크린 비디오, 리얼타임 애니메이션, 이미지 조작 등 PC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며 특히 실물처럼 생생한 색상을 구현하거나 3차원 오디오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출시가 붐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제품의 공급가격은 1천개 단위 구매기준으로 데스크톱용 166MHz 및 200MHz제품은 각각 407달러와 550달러, 노트북용 150MHz 및 166MHz제품은 각각 442달러와 550달러다.

인텔은 또한 기존 펜티엄PC의 MMX펜티엄PC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펜티엄 오버드라이브 프로세서도 올 상반기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형 PC 모니터 공급

진흥전자

진흥전자는 29, 34, 38인치의 대형 PC모니터(모델명 러너)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교육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CD롬 타이틀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영상교육용으로 개발된 이 제품은 15.7MHz의 수평주파수를 가진 기존의 TV브라운관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편향코일회로기판을 내장, 31.5~40kHz

대의 슈퍼 VGA급 컴퓨터 모니터 수준으로 해상도(최대 1024×768)를 높였다.

특히 진흥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대형 PC모니터의 가격은 200만원대에서 600만원선으로 현재 300만원에서 1,000만원대를 호가하는 일본 미쓰비시 대만의 동급제품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한편 진흥전자는 올 상반기에 김포에 별도의 공장을 마련해 생산시설을 2천대 규모로 확장,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특수 저항기사업 강화

제일전자

제일전자가 특수저항기사업을 강화한다.

산화금속피막저항기(MOR)에 주력해 온 제일전자는 최근 이 제품의 주문이 줄어드는데 대응, 메탈클래드저항기·금속판저항기·시멘트저항기 등 특수저항기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일전자는 지난해까지 중견 저항기업체인 H전자에 MOR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해 왔으나 최근 주문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특수저항기의 개발과 생산라인 증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우선 최근 개발한 대

전력형 메탈클래드저항기의 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인 데 이 저항기는 소형이면서도 높은 전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스위칭형 전원공급장치(SMPS)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저항이면서 자기장이 발생되지 않는 금속판저항기(MPR)와 고저항이면서 대전력형인 시멘트 저항기도 국내 모니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일본 등지로 수출선도 개척할 방침이다.

제일전자는 이같은 특수저항기 사업강화 방침에 따라 기존 설비를 개량하는 한편 특수저항기용 설비를 도입, 특수저항기전문업체로 거듭날 계획이다.

카오디오사업 강화

태광산업

오디오 전문업체인 태광산업이 카오디오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자동차 보급이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카오디오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고 보고 자동차 출고때 부착돼 나오는 카오디오 대신 사용자가 취향에 따라 직접 제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시장인 애프터마켓용 카오디오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4년부터 카오디오 개발에 들어가 최근 카세트 플레이어·CDP·앰프의 기능을 높여주는 부스터 등의 제품 생산라인을 구축한 태광산업은 지난해 최대 6개의 스피커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6채널 부스터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초 보급형 제품인 4채널 부스터 2종과 24개의 방송국을 자동 기억할 수 있는 차량용 튜너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태광산업은 카오디오에서 한단계 진보된 개념인 차량용 AV시스템과 카네비게이션장치 등을 개발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특히 애프터마켓용 카오디오의 경우 제품 디자인이 판매의 열쇠가 된다고 보고 약 20명의 카오디오 디자이너들을 확보, 제품 디자인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전국 7군데의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태광산업은 올해부터 총판 위주로 영업한다는 계획 아래 전국 지역별 총판을 모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국내 카오디오의 애프터마켓 규모는 자동차시장의 증가와 비례해 95년 150억원에서 지난해 2백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엔 270억원 정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멀티PC용 스피커 출시

태광산업

오디오 전문업체인 태광산업이 멀티미디어 PC용 스피커(모델명 TSS-130)를 출시했다.

고음 출력용으로 2인치 트위터와 저음 출력용으로 3인치 우퍼를 채용한 2웨이 방식의 이 제품은 정격출력이 10W이며 40Hz에서 20kHz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재생해준다.

또 저음 재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피커 인클로저를 저음반사형(베이스 리플렉스)구조로 설계했다.

차세대 ATM교환기 개발

한국통신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핵심장치인 차세대 ATM(비동기 전송방식)교환기가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통신은 STM1급(155Mbps)정보를 한꺼번에 64개를 처리(10Gbps), 일반 음성전화로 따져 15만5,000명이 동시 통화를 하는 것과 같은 용량의 2세대형 공중망용 ATM교환기의 개발을 완료하고 확인시험을 진행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교환기는 이번주중 시험을 끝내고 6월까지 표준규격화를 거쳐 하반기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위해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 등 5대도시에 설치되고 내년중 80개 거점도시에 추가

로 설치될 예정이다.

차세대 ATM교환기 개발은 한국통신이 총괄하고 주관연구기관인 전자통신연구소(ETRI) 및 대우통신,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한화전자정보통신 등 개업체가 참여, 지난 92년부터 진행돼 왔다.

이번에 개발된 ATM교환기는 1세대격으로 지난 94년 개발돼 서울~대전간선도시험망구간에서 운영중인 PVC(전용선연결)형보다 10배정도의 기술이 높아진 2세대 SVC(신호연결)형이다.

ATM에서 PVC기술은 서비스 되는 두개의 단말기간에 전용선으로 채널이 설정돼 제한적이라 1세대로 불리는 반면 SVC는 신호를 눌러 원하는 단말기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도 개발이 보고돼 있지않은 최첨단기술로 꼽힌다. 이 기술은 여러곳에서 전달되는 음성데이터 화상 등 다양한 대역폭의 정보를 종합관리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를 수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개발팀은 이번 10Gbps급의 소형교환기 개발을 기초로 올 연말까지 159Gbps급용량의 대용량 ATM교환기 개발도 완료할 계획이다.

알파칩 기반 윈도NT

운영체계 WS 발표

한국디지털

한국디지털이 알파칩 기반에 윈도NT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보급형 워크스테이션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미아타」는 디지털의 433MHz급 알파칩을 CPU로 탑재하고 윈도 NT를 운영체제로 사용한 800만원대의 보급형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선 기존의 유닉스 대신 윈도 NT를 운영체제로 사용함에 따라 윈도NT가 워크스테이션의 운영체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중대형컴퓨터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하에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디지털이 손잡고 개발한 첫 작품이라는 측면에서도 무게가 실려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NT를 중대형컴퓨터의 중심적 운영체제로 가져가고 디지털은 알파칩을 인텔의 펜티엄칩을 버금가는 컴퓨터의 주력 CPU로 자리매김한다는 양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디지털은 알파칩의 가격을 지난해말 대폭 인하, 이같은 의지의 일단을 내비춘 바 있다.

한국디지털이 이번에 발표한 미아타와 지난해 하반기에 소개한 인텔 펜티엄프로 기반의 워크스테이션 「카와이」를 무기로 가격 공세를 전개함에 따라 국내 보급형 워크스테이션시장에 새로운 바람

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56kps 초고속 팩스모뎀

한솔전자

한솔전자가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56kbps 초고속 데이터팩스모뎀을 개발했다.

한솔전자는 기존 33.6kbps 팩스모뎀보다 2배 가량 전송속도를 개선한 56kbps 초고속 팩스모뎀 「인스타포트 56K」를 개발, 통신선로상 필드테스트와 형식승인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국내에 시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솔은 지난해 11월부터 「HSI-56K-VPPA」라는 코드명으로 56kbps 팩스모뎀 개발에 착수, 총 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2개월만에 양산모델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솔이 개발한 56kbps 팩스모뎀은 데이터 전송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돼 통신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데이터 송수신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방대한 크기의 멀티미디어 영상데이터와 인터넷 동영상·이미지·사운드 데이터, 영상회의의 비디오 데이터 등을 실시간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인스타포트는 미국 록웰사의 모뎀 칩셋을 사용해 통신중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며 스피드 다이얼링 기능과 자동응답기능, 외부에서 모

템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기능, 팩스·음성 자동 감지 기능, 플러그&플레이기능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한솔은 인스타포트 팩스모뎀을 기본 팩스모뎀 기능을 갖춘 「베이직」과 여기에 스피커폰기능과 음성·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SVD기능을 추가한 「어드밴스트」등 2개 모델로 양산할 방침이다.

17인치 모니터<마젤란 17AX> 출시

한솔전자

국내의 시장에서 최고 품질의 모니터 생산업체로 인정받고 있는 한솔전자가 오는 1월 13일에 17인치 일반형 모니터<마젤란 17AX>를 국내시장에 출시한다. 마젤란 17AX는 ▲17인치 평면브라운관을 사용하여 넓고 편안한 화면을 제공,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모니터이다. ▲0.28mm 도트피치의 블랙스 크린을 채택하여 색상재현도와 선명도가 매우 뛰어나며 ▲1280×1024(60Hz)의 최대해상도를 자랑한다. 또한 ▲사용자의 시력을 보호하는 무반사, 무광택 특수코팅화면을 채택하였고 ▲깜박임 방지 실현(Flicker free) 및 사용자 위주의 화면조정장치인 OSD기능(On Screen Display)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

한 고려하였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UL, CSA, TUV, CE 등의 안전규격과 ISO 9241, GS 사용자 최적환경 규격, MPR-II, TCO(Option) 등의 유해전자파 차단 규격, FCC-B, CISPR22, VCCI의 전자파 방해검정규격을 획득하였다. 이외에도 ▲최적의 방열기능을 고려한 벤트홀 설계가 돋보이며 ▲원도우즈 95에서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는 Plug & Play기능이 지원된다. ▲IBM과 매킨토시에 호환되며 ▲3년간의 제품보증기간으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한솔전자는 지난 10월 충청북도 진천공장의 준공을 계기로 월 10만대의 모니터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17인치 고급형 모니터(마젤란 17PX)에 이어 14, 15인치 모니터(14PX, 15PX) 및 17인치 일반형 모니터(17AX)를 선보임으로써 제품 Line Up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다. 한솔전자는 또한 새해에는 USB, TCO 등 첨단기술 및 규격을 적용한 제품과 20인치 이상의 대형 모니터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DVD 플레이어 상품화

‘윤곽’

해태전자

해태전자가 디지털다기능 디스크(DVD)사업의 윤곽을 드러냈다. 해태전자에 따르면 최근 오디오

연구소가 개발한 DVD플레이어 시제품을 상반기중으로 상품화하고 빠르면 3분기부터 국내외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태전자의 DVD플레이어는 CD와 DVD 재생이 가능한 제품으로 해태전자는 이 제품을 신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정극장시스템에 포함시키거나 DVD오디오로 상품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해태전자는 본격적인 DVD플레이어 양산을 위해 현재 AV리시버·스피커 등을 생산하고 있는 영국 뉴캐슬공장에 DVD플레이어 생산라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는 켄우드·야마하·하만·데논 등 유명 오디오 전문업체들이 잇따라 DVD시장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가전업체들과 치열한 시장 선점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플립형 CT2플러스

단말기 개발

화승전자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화승전자가 광역빠빠 기능을 내장한 플립형 발신전용 휴대전화(CT2 플러스) 단말기 스펙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광역빠빠에 자동이득조정(AGC) 회로를 내장했으며 최대 10개까지 전화번호 및 이름을 저장할 수 있다.

특히 이 CT2 플러스 단말기는 가정용과 공중용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수신전계강도 표시 기능, 자동조명 온 오프기능, 저전압 배터리 경보기능, 통화언어 선택기능, CT2 진동착신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크기 122×50×25mm, 무게 146kg인 이 CTZ 플러그 단말기는 원터치 수신번호 발신기능을 비롯해 수신지역 자·수동선택 기능, 자동무선호출 발신기능, 메모리 다이얼 기능 등을 지니고 있다.

올 매출 1,700억 목표

흥창물산

흥창물산은 계측기기산업 일변도에서 탈피, 통신분야를 주력사업화해 올해 매출 1,700억원을 달성한다는 97년 사업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흥창물산은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개발완료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이동통신 중계기·선형 전력증폭기(LPA) 등 통신분야의 생산라인을 대폭 확충, 지난해보다 150% 늘어난 매출 9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계측기기사업분야에서 300억원, 위성방송 수신기 및 케이블TV 컨버터 등 위성사업 분야에서 47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예정이다.

흥창물산은 통신장비 생산라인 확충을 위해 이달부터 인천 주안을 위치한 제2공장의 아날로그 위성방송 수신기 생산라인을 중국 청도공장으로 이전하고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위치한 제1공장 계측기 생산라인의 중국공장 이전을 이달중으로 완료, 이를 통신장비 생산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MMX PC 이달말

시판

현대전자

현대전자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최대한 지원하는 MMX CPU(중앙처리장치)와 DVD(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롬 드라이브를 장착한 고성능 멀티미디어PC인 「멀티캡마스터」를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회사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올해 PC시장에서 2대 이슈로 등장한 MMX와 DVD기술을 모두 채용해 최상의 멀티미디어 환경을 구축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MMX는 미인텔이 지난 9일 공식 발표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처리 향상기술로 기존의 펜티엄급 PC보다 그래픽 음향 등의 데이터를 60%이상 빨리 처리해준다. 또 영상데이터의 압축과 재생시간을 10배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어 양방향 비디오 그래픽데이터의 실시간 출력이 가능해진다.

또 DVD롬 드라이브를 장착해 HS(고선명)TV수준의 화질로 PC모니터에서 풀스크린으로 동영상 즐기거나 4대 3비율의 일반 TV나 16대 9 와이드TV에 연결해 생생한 영상을 볼 수 있다.

32비트 RISC마이크 생산 2년 연속 확대

일본의 히타치제작소가 휴대정보 단말기용 32비트 RISC 마이크로 생산부문에 세계 최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히타치는 휴대단말기 두뇌부에 사용하는 32비트형 RISC 마이크로 「SH」시리즈 생산을 2년 연속 확대해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29% 증가한 1천6백만개를 출하했다.

히타치는 이같은 RISC 마이크로 출하 증가로 세계시장에서 인텔 등을 제압하고 수위업체로 부각, 자사제품을 사실상 업계표준(디팩트 스탠더드)으로 추진하고 있다.

히타치가 최근 미 조사위원회에 밝힌 RISC 마이크로 세계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히타치의 SH시리즈가 35%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이어 미립스테크놀로지의 「MIPS」가 29%, 인텔 「i960」 12%, IBM 및 모토롤라의 「파워PC」 8%, 영국 어드밴스트리스크머신스의 「ARM」 8%, 기타 8% 순으로 나타났다.

SH는 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CE를 탑재한 기기에 가장 많이 채택돼 있으며 인터넷TV 등에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히타치는 SH시리즈 판매가 디지털 가전분야의 수요증가로 지난해 2백억엔에서, 98년에는 7백억

엔, 2000년에는 1천4백억엔까지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히타치는 특히 주변IC까지 포함하면 총 매출은 단품 매출의 4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SH를 DR램을 대체한 반도체 사업부문 주력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트북 부문 매각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가 자사 모바일 컴퓨팅 부문을 대만 에이서그룹에 매각, 노트북PC 사업에서 손을 뗀다도 전격 발표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TI는 매각금액이나 조건은 밝히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적자상태를 보여온 노트북PC 사업을 정리하고 대신 디지털 신호처리기(DPS)나 모뎀, 휴대전화용 칩 등 자사 핵심분야인 특수 반도체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노트북 사업부문의 매각 발표로 TI는 지난해 4·4분기 2천9백만달러의 적자와 22% 매출하락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7.25달러나 오른 71달러에 거래됐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TI의 DSP제품 매출은 전년동기비 30%가 증가했으며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까지 늘어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TI는 DSP 시장규모

가 최소한 앞으로 2년 정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 분야에 더욱 주력해 확고한 위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TI의 노트북 부문을 인수하게 된 에이서그룹은 TI의 「익스텐사」 및 「트래블메이트」 시리즈와 자사의 「에이서노트 라이트」 「에이서노트 누보」를 당분간 각각의 상표로 생산, 판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이서는 재고량 주기를 줄이기 위해 대만에 있는 모든 노트북 생산시설을 미국 텍사스의 엘패소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TI의 익스텐사를 공동개발했던 에이서는 그동안 제품을 대만에서 생산해왔다.

에이서 아메리카의 로널드 황 사장은 이번 TI의 노트북PC 사업인수와 관련, 「두 회사 강점을 결합해 제품 생산·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 노트북 사업에 한층 더 힘을 쏟을 것」이라며 사업강화의지를 밝혔다.

올 64MD램 6배 증산

일본 오키전기가 64MD램을 증산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키전기는 16MD램 생산라인 일부를 64MD램으로 전환하는 등 64MD램 체제를 본격 구축, 올해 말까지 64MD램 생산능력을 현재의 6배

인 월 60만개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월 3백만개인 16MD램 생산규모는 10~2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가을부터 64MD램 샘플 출하를 시작한 오키전기는 당초 오는 3월말까지 월 10만개 규모의 64MD램,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6MD램 가격하락세가 계속되고 경쟁업체들의 64MD램 증산계획이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바꿔 서둘러 월 60만개 생산체제를 갖 추기로 했다.

현재 삼성전자 NEC 등 한국과 일본 주요 반도체생산업체들이 앞 다퉈 64MD램 증산계획을 발표, 각 업체들은 연말까지 총 월 1백만개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요업체들의 증산 움직임 때문에 D램 세대 교체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1년~1년6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가공세 '2라운드' 돌입

미국 컴팩컴퓨터가 2천달러대 저가 펜티엄프로 서버 신제품과 저장장치 등을 발표, 가격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미 「C넷」에 따르면 먼저 컴팩이 발표한 보급기종인 「프로리언트 800」 서버는 워크그룹용으로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환경에서 파

일, 프린터 서버와 전자우편 서버 용도에 적합한 제품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프로리언트」모델과 같이 백업 및 포트톨러런트(무정지형) 기능이 뛰어나 가용성이 높으며 「인사이트 매니저」를 탑재, 클라이언트 서버 관리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서버의 각 기능을 최적화하고 설치를 간편하게 하는 「스마트스타트」도 채용했다.

기본사양은 1백80MHz 펜티엄 프로와 2백56kB 통합 L2 캐시, 32MB ECC메모리로 시스템 신뢰성을 높였으며 10베이스-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8배속 CD롬드라이브, PCI슬롯 5개 등을 탑재하고 CPU는 두개의 1백80MHz나 2백MHz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또한 와이드 울트라 SCSI컨트롤러를 탑재, 데이터 전송 속도를 초당 40MB까지 높였다.

가격은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제외한 제품이 2천7백78달러이고 2GB 포함할 경우 3천4백88달러로 컴팩은 프로리언트 800의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주력제품화해 나갈 방침이다.

컴팩은 이와 함께 저장장치 성능이 뛰어난 신제품인 「프로리언트 스토리지 시스템/F」도 발표했다.

타워형의 이 제품은 2.1·4.3·9.1GB 용량의 고속 울트라 SCSI

하드드라이브를 탑재하고 있다.

컴팩은 또 소규모 네트워크용 서버인 「프로시그니아」 신제품과 「프로리언트2500」의 하위기종인 「6/180N」모델도 출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소규모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지원기능이 뛰어난 「프로리언트2500 6/180N」의 가격은 4천5백56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마감된 4·4분기에서 컴팩은 순익이 전년 동기비 43%나 늘어난 4억6천2백만달러에 매출도 15% 증가한 54억2천만달러를 올리며 호조를 보였다.

HDD 1억대 출하

미국 시게이트 테크 놀로 지사가 올해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1억대 출하할 계획이다.

시게이트의 앨런 슈가트 사장 겸 CEO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시게이트는 창업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HDD를 총 1억대 출하했는데, 올해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또 다시 1억대를 출하할 계획」이라며 공급확대에 주력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시게이트사는 최근 싱가포르에 HDD를 하루 약 5만대 생산하는 새 공장을 신설했다. 시게이트는 이 밖에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도

HDD 양산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슈가트 사장은 『이같은 공급확대를 통해 HDD부문 총매출을 현재 85억달러에서 오는 2001년까지 1백95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네트워크컴퓨터(NC) 보급과 관련해 『단말기 가격억제를 목표로 하는 NC구상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만약 NC가 성공한다 해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는 필요하다』며 NC보급과 HDD수요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PC주변기기 접속장치 규격 통일

미국 PC 주변기기업체들이 PC와 주변기기를 연결하는 접속장치 규격을 통일한다.

PC·주변기기 접속장치 규격인 파이버채널(FC)과 시리얼 스토리지 아키텍처(SSA) 양 진영은 최근 미국 러스에서 회담을 갖고 오는 10월 말까지 두 규격을 통합한 새로운 사양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FC는 시게이트와 퀴텀이, SSA는 IBM과 코너가 중심이 돼 추진해온 PC·주변기기 접속장치 표준이다. FC와 SSA 두 진영은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에서 규격통합과 관련해 논의한 바 있으나 당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새로운 사양 탄생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왔

다.

그러나 코너가 시게이트를 합병함에 따라 접속장치 규격 흐름이 FC쪽으로 기울면서 양측은 FC규격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사양 마련에 합의했다.

PCI 카드버스 컨트롤러 공급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코리아가 초당 1백30Mb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PCI 카드버스 컨트롤러인 「PCI1250」과 「PCI1220」을 공급한다.

이 제품은 기존 카드버스 컨트롤러보다 속도가 약 3배 빠르면서도 소비전력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노트북PC 등 휴대용 컴퓨터의 멀티미디어 응용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PC97 하드웨어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며 이중라인 FIFO(First-In First-Out) 형태의 구조로 양방향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제품의 줌비디오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의 버퍼를 필요로 하는 데 비해 버퍼를 통합, 2개의 카드 소켓의 줌비디오를 지원할 수 있다.

원통형 리튬전지 증산

일본 도시바계 리튬이온 2차전지업체인 에이티배터리(ATB)가 원통형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증산

에 나선다.

올 여름을 목표로 리튬이온전지의 생산력을 현재의 1.5배인 월간 6백만개로 확대하는 동시에 원통형 제품의 생산비율을 60%로 높여 PC용 시장공략을 본격화한다.

지금까지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각종 전지 생산에 주력해 온 ATB가 원통형 중심의 증산에 나선 것은 수요와 수익 확대를 위해선 기기 1대당 전지사용량이 보다 많은 PC용 수요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증산의 일환으로 이미 마에바시공장에 신규라인을 건설중이다. 새 라인인 완공되면 ATB의 생산력은 가와사키의 본사공장과 합쳐 현재의 월산 4백만개에서 6백만개로 증대된다.

또 오는 6월 이후 각형과 원통형의 생산비율은 현재의 6대4에서 4대6으로 역전된다.

ATB는 리튬이온전지의 후발업체로 그동안 소니 등 선발 대형업체들이 소홀히 해온 각형에 주력, 휴대전화용 전지시장을 개척해왔다.

2000년 까지 ITA 참여

말레이시아는 오는 2000년까지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의 정보기술협정(ITA)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싱가포르의 유력한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

즈」가 최근 보도 했다.

세계 28개 국가가 싱가포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협정을 체결하기로 지난달 합의했으나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이 협정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협정 참여를 거부해왔다.

라피드 아지즈 말레이시아 통상산업장관은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ITA기술협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ITA가 말레이시아에 미칠 파급효과와 대상품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라피드 장관은 『말레이시아는 현재까지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할 품목을 20~30개 가량 선정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민·관 첨단전자연 설립

태국 정부는 차세대 전자산업 요소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태국 정부는 신홍 반도체업체인 알파테크일렉트로닉스와 공동으로 차칭사오현에 4천6백60만달러를 투입해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구소를 건설하고 반도체 전처리 공정 등 첨단 전자관련 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이들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성형하는 전공정을 중점개발하게 되며 IC설계와 광섬유, 통신 관련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2001년까지 반도체 부문 등의 전문인력 1천4백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태국 정부의 이같은 연구개발센터 설립추진은 반도체 전공정처리의 부가가치가 높는데다 태국에 일본계 반도체 조립업체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이 분야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수요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은 섬유와 플라스틱 제품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지난해에는 13년만에 수출이 감소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고도 정보기반 정비 계획인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더」에 비견할 만한 민관 산업고도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엔 세우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개발센터는 그 첫 사업이다.

TV사업 포기

독일 지멘스는 최근 70년만에 TV를 포함한 레저용 전자산업에서 철수했다고 발표, 두번째로 TV사업을 포기한 유럽의 주요 전자제조업체가 됐다.

지멘스는 텔레비전과 다른 레저 장비 시장이 독일과 유럽에서 위

축되고 있고 부품들을 동북아 지역에서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지난해말로 레저용 전자장비 제조에서 철수했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의 필립스 그룹은 시장환경 악화로 32%의 지분을 갖고 있는 독일의 텔레비전 제조업체 그룬디히에서 손을 뗐다고 밝혔다.

인터넷TV 연내 개발

미국의 가전업체인 제니스 일렉트로닉스가 인터넷TV를 개발한다.

제니스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97동계종합가전박람회(CES)에서 오라클 및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와 손잡고 인터넷 TV 「넷비전」을 올해 안에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세트톱박스·통합TV수상기 등이 포함된 넷비전을 통해 TV 시청자들은 인터넷의 웹(WWW)에 접속, 전자우편으로 음성·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교환하거나 온라인 쇼핑·홈뱅킹을 비롯한 TV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니스는 또 넷비전이 오라클의 네트워킹컴퓨터(NC) 운용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대화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넷스케이프의 검색 소프트웨어인 내비오를 통해 가전부문과 인터넷부문 결합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품사업 대폭 강화

일본 산요가 반도체·액정·컴프레서·광픽업·2차전지 등 부품사업을 강화한다.

플래시메모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대형 박막트랜지스터(TFT) 방식 액정표시장치(LCD) 생산을 위한 새 공장을 건설한다. 또 컴프레서 증산을 추진하고 국내외에서 광픽업 생산을 확대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니가타산요 전자에 올해 6백억엔을 투자해 플래시메모리 증산라인을 설치한다.

액정부문의 경우 산요LCD엔지니어링에서 양산을 시작한 저온실리콘 TFT LCD 생산을 늘리고, 돗토리산요에 4백70억엔을 들여 암퍼스실리콘 TFT LCD 신공장을 건설한다. 이 공장에서는 98년 하반기부터 대형 암퍼스실리콘 TFT LCD 생산을 시작한다.

이밖에도 현재 냉장고, 에어컨용으로 국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컴프레서 생산량을 현재 9백50만개에서 올해 1천만개, 2000년에는 1천4백만개로 늘리고 한국·일본·중국 등 3개국에 있는 광픽업 생산공장 생산도 확대한다.

산요는 니카드전지가 공구를 비롯한 코드리스 기기에 채용이 확대 되는데다 소형·경량화 요구가 적은 보급형기기와 중국 등 신규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를 감

안해 이미 국내외를 합쳐 월 6천만개 생산체제를 갖춰놓고 있다. 또 니켈수소전지 월 1천만개, 리튬이온전지 월 5백만개 생산능력을 확보해놓고 있다.

산요는 이들 부품사업 강화를 통해 이들 부품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46%에서 올해 말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64비트 유닉스서버 발표

미국 선 마이크로시스템스가 64비트 유닉스 서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선사가 발표할 유닉스 서버 「울트라 엔터프라이즈 10000」은 2백50MHz 울트라 스파크를 대칭형 멀티프로세싱(SMP) 방식으로 64개까지 탑재, 20테라바이트(TB)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최고 성능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자회사인 크레이 리서치의 솔라리스 기반 CS6400 기술을 채용해 메인프레임급 분할기능을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대부분의 유닉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운용할 수 있다.

선사는 시스템을 재부팅할 필요 없이 여러개의 서버로 나누어 작업할 수 있는 다이내믹 시스템 도메인(DSD)이 울트라 엔터프라이즈 10000의 핵심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선사는 이미 이 시스템을 아메리카 에어라인의 정보기술부문인 세이버 디지전 테크놀로지에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전형 시스템LSI 개발

미국 아날로그 디바이스사가 가전제품 소비전력을 최대 6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대규모 집적회로(LSI)를 개발했다고 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날로그 디바이스사는 이 회사의 16비트 고정소숫점 디지털 신호처리(DSP)와 4kB 프로그램 내장 메모리, 주변회로 등 3개의 IC칩을 윈칩화한 시스템LSI (모델명 ADMC330)를 개발, 일본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이 LSI는 센서로 모터 위치·속도를 측정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DSP로 직접 모터를 구동시켜 모터 구동을 위한 벨트, 기어 등의 기계부분이 필요없다.

이에 따라 냉장고와 세탁기 등 모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경우가 LSI를 채용하면 최대 60%까지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가전업체들은 모터 제어를 위해 8비트 마이컴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소비전력의 최적화를 위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DSP 사용을 검토해왔다.

DSP는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

였지만 지난해부터 반도체 업체들이 저가 DSP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소비전력을 줄이는 것이 가전제품 개발의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시스템 LSI는 가전업체들의 저소비전력 제품 개발경쟁을 한층 가열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USB기능 코어 제품군 공급

LSI로직코리아가 디지털 카메라·ISDN모뎀·데스크톱 화상회의 시스템 등 멀티기능을 가진 주변 기기에 활용할 수 있는 USB(Universal Serial Bus)기능코어 제품군을 공급한다.

USB기능코어는 호스트나 허브에서 USB로 완벽한 접속을 가능케 하는 제품으로, 최대속도와 저속기능 등 두가지 모두를 지원하며 응용 프로그램의 필요에 맞춰 전력과 게이트 수를 최적화할 수 있다.

특히 LSI로직의 광범위한 코어웨어 라이브러리와 결합, 신속한 설계와 차별화된 USB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신형 카드버스 어답터

미국의 아답텍사는 휴대형 컴퓨터에 연결된 주변기기를 현재보다 10배까지 빠르게 작동시킬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신형 SCSI 카드버스는 과거 데스크탑에서만 가능했던 울트라 SCSI 기능을 랩톱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의 PC카드 인터페이스 기술은 초당 2MB의 한계를 안고 있어 아이오메가(Iomega) 탈착형 드라이브와 같은 최신 고속 주변기기를 사용할 때 그들 기기가 갖고 있는 최고 속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답텍사의 이번 신제품은 신 PCMCIA 산업표준 카드버스 인터페이스를 채택함으로써 32비트 버스, 빠른 전송률, 그리고 울트라 SCSI 하드 드라이브 사용시 초당 20MB의 버스 마스터링(Bus Mastering)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기타 주변 장치들이 각각 자기의 최고 속도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신형 SCSI 카드버스 어답터는 향상된 데이터 전송률 외에도 CPU의 사용을 현저히 줄여줌으로써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을 증대시켜 준다.

CPU사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비디오나 CD-R기능의 마스터링 CD와 같이 CPU의 준도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답텍사 포터블제품 그룹의 페어맨(Faye Pairman) 총지배인은 『많은 비즈니스 맨들이 데스크탑 PC보다는 편리하고 융통성 있는 포터블 PC쪽으로 옮겨가고 있

다』 『이들 휴대형 PC에 폭넓은 접속능력과 성능을 공급하여 데스크탑 못지 않은 성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답텍의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PC용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 카드 제조

미국의 아답텍사는 디렉티브(DIRECTV, Inc)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의 위성직접방송(DBS: Direct Broadcast Satellite)서비스를 PC에서 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DSS수신카드를 제조하기로 했다.

이 카드를 컴퓨터에 장착하면 고출력 DBS 서비스 업체인 디렉티브가 송출하는 디지털 데이터,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서비스를 PC에서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아답텍사는 통신위성과 PC를 연결하여 고품질 디지털 비디오, 인터넷, 혹은 웹(Web) 데이터 정보를 디렉티브가 직장이나 가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광대역 I/O기술을 개발중에 있다.

아답텍사의 이번 계약과 DSS 수신 기술 라이선싱으로 인해 PC 시스템 제조업체들은 데스크탑 PC는 물론 흔히들 PC/TV라고 부르는 오락용 PC의 개발에 아답텍의 광대역 I/O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광대역 I/O기술은 오락방송 외

에도 금융, 재무, 기타 사업 정보처럼 타이밍에 민감한 정보의 공급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아답텍의 광대역 제품은 초당 30Mbit의 속도로 PC에 프로그램 정보를 전달하게 되며, DSS와 PC를 통합함으로써 위성을 통해 빠르고 안정된 데이터 수신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아답텍사 광대역 제품그룹 디 매튜스(Dick Matthews) 상무는 『고화질 디지털 비디오, 인터넷, 멀티미디어 센터로 가정용 PC가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오락 및 데이터 서비스에 얼마나 손쉽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며 『PC와 디렉티브의 연결은 보다 광범위한 통신을 갈구하는 가정 및 직장 PC사용자들에게 데이터의 적시 공급과 빠른 멀티미디어 다운로드를 가능케 해줄 것』이라며 말했다.

향상된 내장형 어플리케이션용 고속, 저가의 수퍼스칼라 프로세서 발표

모토로라(NYSE : MOT)의 반도체 사업부는 오는 모토로라의 수퍼스칼라 68060계열의 최신 제품인 66MHz MC68EC060마이크로프로세서를 발표하였다.

이제 모토로라는 성능에 있어 1MIPS에서 100MIPS이상의 영역을 커버하면서 M68000코드와

호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모토로라는 현재 혁신적인 가격으로 50MHz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MC680×0계열의 최고 가격대 성능치와 MC680×0과 완전한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다.

MC68EC060은 66MHz에서 102MIPs로 680×0 수퍼스칼라 정수 연산의 최고 수준을 제공한다.

MC68EC060의 고성능, 저전력 소비, 경제적인 가격은 내장형 제어에 있어 가격에 민감한 첨단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뛰어난 솔루션을 제공한다.

“MC68EC060은 경제적인 방법으로 MC68060의 수퍼스칼라 연산을 제공합니다.”라고 모토로라의 내장형 프로세서 부서의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기술 마케팅 책임자인 Mike Frawley씨는 말했다.

“이 프로세서는 전력제어, 수퍼스칼라 기능, 함수에 필요불가결한 68K를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용으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라고 덧붙였다.

MC68EC060은 내장형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최적화된 MC68060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정 명령어 세트컴퓨터(RISC) 디자인과 같이 여러가지 성능 향상을 꾀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아키텍처 기술을 추가한 MC68EC

060은 다른 MC68060 계열의 칩과 같은 정수 연산능력을 발휘한다.

MC68EC060은 206을 가진 PAG 패키지로써 현재 구입이 가능하다. 모든 MC68060 계열처럼 MC68EC060은 단일의 3.3V 전원 공급으로 작동하며 5V 입력까지 허용한다.

66MHz MC68EC060 샘플들은 현재 모토로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1997년 1사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보급형 PC시장 공략 본격화

미국 사이릭스가 보급형PC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고 미 「C넷」이 최근 보도했다.

사이릭스는 이를 위해 칩 컴퓨터를 통합한 GX86 프로세서 및 이에 기반한 시스템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다.

GX86은 그래픽 칩 등 PC에 별도로 장착되는 칩을 하나로 통합한 원칩형 제품으로 인텔의 펜티엄 중위 모델급 처리성능을 내는 프로세서.

사이릭스는 GX86 판매와 병행해 이에 기반한 시스템을 PC판매업체들에 OEM 공급할 예정인데 세계 최대 PC업체인 컴팩컴퓨터도 이 칩을 사용한 제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GX86 시스템 가격은 7백~1천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